

2019.07.24.

제27회 아산서평모임

서평 : 김명구 지음 『한국 기독교사 1』 (서울: 예영, 2018) 584 쪽.

박종현(한국교회사학연구원)

1. 역사학의 본질과 방법

한국 개신교사를 논의하려면 먼저 역사학의 본질과 방법을 논의하여야 한다. 역사학은 인문학으로서 인간의 축적된 유산과 전통과 대화하는 것이다. 역사학은 필연적으로 대상과 방법이 요청된다. 대상은 과거의 인간의 행위와 사유이다. 과거의 사유와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탐색하여 인간의 본성을 묻고자 하는 것이 역사학의 본질이다. 한국의 개신교 역시 이러한 과거의 행위와 사유를 대상으로 삼아 대화하며 연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방법론이다. 역사를 기술하는 저자가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환연하면 한국의 개신교 역사에서 역사가들이 개신교인들과 사건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하는 것이 기존의 서술에 드러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 서술은 기존의 역사가들의 서술과 대화하여야 한다.

즉 새로운 역사 서술은 1차 사료와 발굴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과 역사적 인간 존재에 접근하며 2차 문서들을 통하여 과거를 인식하였던 기존의 역사가들과 대화하며 사건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한 단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인식을 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 연구사의 검토의 필요성

한국 기독교사 서술을 위한 예비 작업으로써 기존의 서술을 검토하여야 한다. 백락준의 선교사관, 김양선, 김광수, 오윤태, 관안련의 책이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출간되었다. 그후 민족사관이라는 개성적 역사해석을 시도한 민경배의 저술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후에 기독교 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한국교회사 통사로 실증사관을 표방하면서 3권짜리 저술이 완성되었고 주재용의 민중사관을 반영한 사상사와 통사가 발간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박용규의 복음주의 사관을 표방한 3권의 대작이 출간되었고 그 외에 개인의 저작들이 있고 오늘 토론하는 김명구 박사의 저술도 최근의 한국개신교 역사의 통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통사들이 서로의 존재를 언급하기는 하되 서로의 기술에 깊은 대화가 부재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학술적 공유 및 전통의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3. 대안의 가능성으로서 특정 분야를 기술하기

장규식의 기독교민족운동사, 민경배 한규무의 기독교 사회운동사, 이만열의 문화운동사와 기독교의료사, 유동식, 주재용, 박용규, 콘, 등의 한국개신교 사상사, 로이 쉬어러의 한국기독교 성장사 및 교파사 민경배 장로교회, 유동식 감리교회, 박병수의 성결교회, 허긴 침례교, 장병일 구세군사, 이재정 성공회사 등이 출간되어 있다.

윤춘병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의 문서운동사가 있고 기독교 기관사로 YMCA, YWCA, 여전도회, 태화사회복지관, 월드비전 등이 소개되어 있다. 찬송가 연구로는 민경배의 찬송가사와 문옥배의 탁월한 연구가 나와 있다. 기독교 여성사도 다수의 연구 논문과 저술이 출간되어 있다. 그 외에 전택부 등이 저술한 에큐메니칼운동사가 있다.

박명수의 복음주의 연구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기독교 영향을 연구한 탁월한 업적이며 한국학자인 뉴질랜드의 케네스 웰즈의 『새 하나님 새 민족』은 연구자들이 참고하여야 할 필수적 저작이다. 웰즈의 저서는 한국교회사 서술 방식에 획기적인 방법을 보여 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서술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

1). 기존의 역사 서술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료의 사용과 더불어). 추후의 재판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서술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서술과 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김명구 박사의 저술은 저자의 복음주의자의 관점이 있는 반면에 대상의 범위와 성격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재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통계자료의 필요성 증대. 기존의 사건의 재구성의 형태를 벗어나 인문학적 사실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통계적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인문과 사회과학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미국의 종교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 ‘초기 기독교의 발흥’ 등의 저술은 통계적 자료의 사용과 그 기법을 보여 준다.

4). 개인 저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그룹의 토론의 필요성. 논평자의 견해로는 한국 개신교사의 통사적 사술은 이제 개인이 쓸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특정 분야의 서술이라면 몰라도 개신교사 전체를 통사로서 기술하려면 미국과 유럽의 예처럼 공동작업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5). 용어의 정의와 사용은 한국 인문학의 난제이다. 기독교사인가 개신교사인가? 기독교는 종교의 명칭이고 개신교회는 교회의 명칭이다.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 cons, pros 는 라틴어 접두사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형용사적 의미의 용어로서 연구자는 이 용어를 자신의 연구에서 정의하여야 한다.

6). 시대 구분에서도 그 이론적 토대가 서론에서든 각각의 장에서든 시대 구분의 기준이 이론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논평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검토되고 저술의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